

2016. 5. 16.(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중부일보

2016년 05월 16일 (월)
03B면 종합

200여 라이더 행렬, DMZ일대 질주 道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 성황

경기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행사가 지난 14일 연천군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일원에서 개최됐다.

'DMZ 일원을 만끽하는 19km 자전거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가족, 친구, 동호회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전거 라이더 2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임진물새롬랜드에서 출발해 임진강변을 따라 임진교, 허브빌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나 군남홍수조절지에서 회차, 다시 임진물새롬랜드로 돌아오는 약 19km 코스를 달렸다. 이 코스는 임진강변 위 독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변의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행사가 지난 14일 연천군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일원에서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청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가족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 참가자인 문세영(38)씨는 "이번 자전거 투어를 통해 연천 곳곳에 숨겨진

명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이곳을 꼭 방문해 평화누리길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윤성기자
17.4 X 10.3 cm



두 바퀴로 만끽한 DMZ의 평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4일 연천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일원에서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DMZ 일원을 만끽하는 19km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친구·동호회 등 전국에서 자전거 라이더 200여명이 참가,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임진교와 허브빌리지 일원 북삼교·군남홍수조절지를 거쳐 다시 임진물새롬랜드로 돌아오는 약 19km 코스를 달렸다. 사진은 자전거 투어에 앞서 참가자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17.8 X 11.0 cm

도내 방문 외국인 '임진각' 최다 관광

분단국 특성상 북부지역 집중...내국인 포함 전체 '에버랜드' 1위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상황을 대변하듯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파주 임진각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집계에서는 용인 에버랜드가 관광지 1위를 차지했다.

15일 경기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파주 임진각으로 전체 외국관광객 327만6000명 중 62만6000명이 다녀갔다.

이어 용인 에버랜드(44만6000명), 용인 한국민속촌(37만6000명), 파주 제3땅굴(30만6000명), 고양 김치스쿨(28만2000명), 가평 베네스트골프클럽(27만9000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파주 108만3000명 ▲용인 88만5000명 ▲고양 61만3000 ▲가평 30만7000명 등을 많이 방문했다.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수는 2005년 182만1000명에서 2010년 294만4000명, 지난해 327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내국

인+외국인)수 역시 6369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5435만8000명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용인(1399만8000명)을 가장 많이 찾았고, 과천(1252만1000명), 고양(1094만4000명), 파주(800만70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은 경기도 관광객수의 71.4%를 끌어올렸다.

장소별로는 ▲용인 에버랜드(732만3000명) ▲파주 임진각(580만명) ▲고양 킨텍스(521만8000명) ▲과천 서울대공원(470만6000명) ▲경마공원

(375만6000명) ▲서울랜드(202만8000명) ▲용인 한국민속촌(146만8000명)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관광지수는 총 240개로 용인, 안성이 각각 33개(13.8%)로 가장 많았고, 가평 27개(11.3%), 파주 24개(10.0%), 고양 21개(8.8%) 등이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고, 분단국가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지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idee@incheonilbo.com 23.3 X 11.4 cm

방문객 가장 많은 경기도 관광지는 에버랜드.. .외국인은 임진각

방문객 가장 많은 경기도 관광지는 에버랜드...외국인은 임진각
(수원=연합뉴스) 최찬홍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지역 관광지는 파주 임진각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6천369만8천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5천435만8천명보다 934만명(17%) 늘어났다.

장소별로는 용인 에버랜드가 732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 임진각 580만명, 고양킨텍스 521만8천명, 과천 서울대공원 470만6천명, 과천 경마공원 375만6천명 등의 순이었다.

과천 서울랜드(202만8천명), 용인 한국민속촌(146만8천명), 용인 캐리비안베이(143만4천명), 과천 국립과학관(132만2천명), 가평 아침고요수목원(115만8천명) 등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광명 광명동굴의 경우 10년 만에 308배로 증가한 154만3천명을 기록, 1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모두 327만6천명이 찾아 2005년 182만1천명보다 145만5천명(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주 임진각이 62만5천명으로 최다였고 용인 에버랜드 46만6천명, 용인 한국민속촌 37만6천명, 파주 제3땅굴 30만6천명, 고양 김치스쿨 28만2천명, 가평 베네스트골프클럽 27만9천명, 과천 서울랜드 14만6천명, 고양 킨텍스 14만1천명, 고양 원마운트 7만1천명, 수원 화성 6만8천명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분단국가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자료를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